

# 정보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 추가 정보 제공 방법 — 관련성 이론 중심으로

김 순 미  
(숙명여대)

## 1. 서문

사회, 문화, 역사적인 차이가 큰 언어 간 번역에서는 매우 단순해 보이는 어휘나 표현들조차도 일대일 대응으로는 목표언어(target language: TL) 독자들에게 완전히 왜곡된 의미를 전해 주거나 아무 의미도 전달하지 못 할 수 있다. 같은 문화, 사회, 역사적 배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공유 지식’(mutual knowledge)<sup>1)</sup>은 아무리 간단하고 일상적인 것일지라도 외부 사람들에게는 이해

1) 뉴버트(Neubert)와 슈리브(Shreve)는 ‘공유지식’(mutual knowledge)이란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통의 경험 체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하는 것으로 공유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공통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1992: 54). 그러므로 번역가의 임무는 TL 독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수준을 파악한 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기 어려운 지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유 지식 차이로 인한 정보성<sup>2)</sup>의 문제에 직면한 번역가가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설명을 추가하여 원천 텍스트(source text: ST) 저자와 목표 텍스트(target text: TT) 독자의 공유지식 차이를 좁혀주는 것이다. 이 때 목표는 독자들이 되도록이면 쉽게 문맥을 이해하고 원천 텍스트 독자들이 느낀 것과 같은 친근함과 언어적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번역가들은 문맥에 '적절'(relevant) 하면서도 독자들이 기준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관련된 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추가설명을 하는 번역가에게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은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준다. 관련성 이론을 적용해 보면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효과가 극대화 된다. 첫째, 짧은 문장 안에 꼭 필요한 정보를 추가해야 하므로 정보치리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제공해야지 지나치게 복잡하고 길거나 지나치게 짧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독자들의 이해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이려면 그들이 내면에 구축해 놓은 인지 세계와 관련성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문맥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성 이론에 근거한 정보 추가의 방법을 논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양한 문학 텍스트 내에 삽입된 역주와 각주를 중심으로 번역 양상을 분석했다. 처음 문제 제기된 텍스트의 역주나 각주는 모두 기존 번역가들의 것이며,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본 저자가 관련성 이론에 입각해 새로운 번역 방법을 제시하였다. 문학 텍스트는 정보전달 중심의 텍스트가 아니라 문학의 향기와 언어, 수사적 표현의 미적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석 과정은 추가 정보 자체의 과학적, 논리적 옳고 그름을 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번역가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은 역주의 기본 전제라고 보고 있다. 그 보다는 그 정보가 현재의 문맥, 그리고 독자들이 가진 인지적 배경과 얼마나 관련성을 가지고 그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도와 문맥 효과를 상승시켜 주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추가를 통해서도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분석하여 독자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고서도 효과적으로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번역방법

2) 정보성이란 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새롭거나 낮은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이 개념은 내용(content)과 관련하여 쓰이지만 한 언어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언어 사용 형태에도 적용된다(Beaugrande 1981: 139). (밑줄은 필자의 것)

은 어떤 것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관련성 이론

관련성 이론은 의사소통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관련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대화 참여자들이 ‘최소한의 정보처리 노력’으로 ‘최대한의 인지적 효과’를 거두려 하기 때문이다.<sup>3)</sup>

효과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잘못된 가정을 세워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는 청자와 화자의 마음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우선 화자는 청자들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도록 즉, 청자가 필요이상의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문맥적 효과를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해야 한다. 한편 청자는 텍스트에서 주어진 정보와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을 총동원하여 화자가 실제 ‘의도한’ 가정을 제대로 선택하고 파악해야 한다(Gutt 2000: 28). 이 때 최적의 관련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청자들은 일단 자신들이 가장 손쉽게<sup>4)</sup> 얻을 수 있으면서도 문맥과의 관련성이 높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해석을 한다. 동시에 그들은 친근한 정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어려운 정보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에 대한 지식을

3) 효과의 원칙: 적절한 내용을 최대한 전달하거나 의사소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완수하여 한 문맥에서 어떤 표현이 문맥적인 영향력이 있을 때 그것을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효율의 원칙: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 즉, 한 문맥에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드는 노력일 작을 때 그 가정을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Gutt 2000: 31)

4) 다른 인간 활동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이라는 과정도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욕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은 그 과정에 필요한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다.

개선, 보완하려는 욕구도 가지고 있다. 화자와 청자는 모두 이처럼 아는 정보를 기초로 하여 문맥을 보완, 혹은 개선(improve)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여기서 문맥을 개선시키는 정보란 구 정보(old information)를 그저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구 정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신정보(new information)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문맥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구 정보와 신정보는 서로 상호작용<sup>5)</sup>해야 한다 (Sperber 1995: 109).

이처럼 화자와 청자는 모두 약간은 흥미로우면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할 의지도 있으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문제는 노르트(Nord)가 주장하였듯이 “작가가 의도한 것과 텍스트를 수용하는 독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1991: 48)는 점이다. 그러므로 언어와 문화의 중재자이며 번역문의 작가인 번역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번역가는 원작가의 의도를 올바르게 해석한다.

둘째, 번역가는 자신이 원문을 해석한 것을 목표언어 독자들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언어화하여야 한다.

셋째, 원문 독자와 번역문 독자들의 배경 지식과 기대는 같거나 번역가에 의해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 (Nord 2001: 86)

이렇게 볼 때 TT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번역가들은 문맥에 적절하면서도 새롭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지식을 공급하되 이것이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적절히 연결될 수 있게 해주어야 자신이 목적하는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제는 관련성의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구트(Gutt)에 의하면 모르는 사람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대화하는 경우보다 전문 서적을 읽을 때 독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을 기대하며 이에 따른 노력을 기울일 준비도 되어 있다(2000: 34). 또한 문학 작품의 경우 작가는 특이한 문체와 다양한 수사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전달하려 하고 독자

5) 신정보는 예전에 청자가 세운 가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여 그 가정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하여 예전에 세웠던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Sperber 1995: 109).

들도 다른 텍스트를 읽을 때보다 다양한 표현을 음미하고 이해하려는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인다고 한다. 이를 고려할 때 문화적 배경이 강한 외국문학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작가 특유의 말솜씨와 문화적 요소들을 접하고자 하는 의지나 지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관련성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속한 장르나 독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번역가들은 정확한 문맥 파악을 한 후 자신이 의도하는 독자층의 지식수준이나 욕구와 관련성이 있는 정보의 수준을 인식하여 가장 적절한 추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2.2. ST 저자와 TT 독자 사이의 공유정보 차이 해결 방법

독자들은 아무리 메시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때에도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최선을 다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어디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게끔 미리 프로그램되어있는 듯하다(Enkvist 1991, Leppihalme 1997: 22 재인용). 이같이 볼 때 TT 독자들도 ST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을 한다. 그러나 ST 독자들과 비교해 원저자와 소통의 통로(channel)가 좁기 때문에 번역가가 텍스트를 적절히 수정 보완해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ST 독자들처럼 원활하게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Nida 1969: 164). 이때 번역가들은 주어진 정보를 유지하면서 거기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낯선 정보를 삭제, 축소하거나 상위어(superordinate) 표현으로 번역하거나 목표 언어 독자들에게 친근한 정보로 대체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Kirk 2001: 125-126). 문맥이 목표언어 독자들에게 지나치게 낯설거나 어려워져 정보처리에 드는 노력에 비해 얻게 되는 효과가 적은 경우, 혹은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할 정도로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정보를 삭제하거나 축소하게 되고<sup>6)</sup> 특정 내용이 독자들의 문맥 이해에 필요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넣어

6)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베이커는 “독자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에도 긴 설명을 반드시 추가해야 할 정도로 특정 항목이나 표현이 전하는 의미가 텍스트의 전개에 중요하지 않다면 번역가들은 그 단어나 표현을 간단히 삭제해 버리는 방법을 쓸 수 있다(Baker 1992: 40).

준다. 정보 추가 방법과 관련하여 광성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원천 언어권 독자들의 공유 정보 양이 목표 언어권 독자들의 공유 정보보다 많다면 번역가는 목표 언어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로 정보를 넣어서 그 정보의 차이를 보충해 줄 수 있다. 이 때 번역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 텍스트 내에서 설명, (b) 텍스트 안에 괄호를 넣어 그 안에 설명, (c) 텍스트 내에 역주를 넣어 설명, (d) 각주를 추가해 설명, (e) 권말에 용어집, 역해를 넣어 설명 (2001: 137)

본 논문에서는 이 다섯 가지 정보를 추가하는 번역 방법 중 (c)와 (d)의 역주, 각주를 이용하여 언어, 문화적 차이를 채워주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러나 적절한 번역 방법을 논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내에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나 목표어권에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등 다른 설명 방법들도 제시하거나 언급할 것이다.

역주나 각주는 모두 주석에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텍스트에서 주석이란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거나,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보충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글의 전개 순서를 보아 본문의 내용 중에 넣기 부담스러운 경우 사용한다. 이 중 역주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표현 옆에 번역가들이 내용을 넣어 주고 ‘옮긴이’, ‘역주’ 등의 표현을 써서 번역가의 설명임을 밝혀 주는 방법이고 각주는 본문 내용에 대한 번역가의 주해로 본문 아래쪽에 작은 활자로 추가한다. 역주의 경우 본문 내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각주의 경우보다는 시선이 덜 분산되고 독서의 흐름도 덜 끊어진다. 그러므로 문학번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각주보다 역주가 더 많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정보 추가는 전적으로 번역가의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와 추가될 내용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번역가들의 정확한 문맥 이해와 정확한 관련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다. 다음에서는 각주나 역주를 통해 보충 설명을 넣은 번역의 다양한 종류를 살펴보고자한다.

정보 중심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추가 설명은 주로 사실적인 정보나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문학번역의 경우 사실적 정보의 제공 뿐 아니라 언어적, 수사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여주기 위한 설명도 많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목표어권 독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문화적 요소, 즉, 인물, 사건, 장소, 기관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문에서 주인공은 패션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쪽에 관련된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야 하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예문에서 번역가는 각주를 통해 텍스트 안의 ‘인물’이 패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ST1) Unfortunately for me, Julia worked for an educational publishing house where someone like Nora Ephron or Wendy Wasserstein was much likelier to get VIP treatment than someone known for her impeccable taste in fur. (Devil Wears Prada p93)

TT1) 줄리아가 학습물 출판사에서 일한다는 건 내겐 적잖은 불행이었다. 그곳에서는 모피에 취미를 가진 사람보다는 노라 에프론\*이나 웬디 바서 슈타인\* 같은 사람이 VIP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각주\*노라 에프론은 뉴욕타임즈지 편집장 출신 영화감독이며, 웬디 바서 슈타인은 폴리처상을 수상한 극작가이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p146)

두 번째는 함축된 의미가 있어 추가 설명 없이는 의미가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경우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예문을 보면 ‘morning’이라는 단어는 설명 없이 이해가 되는 표현이지만 아침을 ‘오전’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에 반해 작가가 사용한 ‘morning’은 ‘오후 3-4시’까지를 의미하고 있다. 결국 이 문맥에서 아침나절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자기 시간이 있다’는 것이므로 번역가는 문화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 번역가는 함축된 의미를 명백히 해주어 문맥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

ST2) “While, I can have my mornings to myself,” said she, “it is enough. —I think it no sacrifice to join occasionally in evening engagements ……” (Pride and Prejudice p86)

TT2) “아침나절(당시 시골 생활에서 morning 은 대개 아침 식사 후부터

오후 정찬 때까지를 지칭하므로 낮 시간도 포함된다- 옮긴이)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녀는 말했다. “나한테는 그걸로 충분해. 저녁에 가끔 파티에 가는 걸 희생이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오만과 편견p126)

세 번째는 은유나 관용구 등 수사적 표현 속에 나타나는 역사, 문화적 배경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다음 텍스트에서 “너의 월터 롤리 경이 되지 못한다”는 표현은 은유적 용법으로 그 배경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해할 수 없으므로 번역가는 이에 대한 역주를 추가하였다.

ST3) “I wear no cloak, darling Meggie, so I can't be your Sir Walter Raleigh. I'm sure you'll excuse me, my dear Miss Carmichael!"-the reins were passed to the lady- but I can't permit my favorite girl to muddy her shoes, now can I?" (The Thorn Birds p119)

TT3) “사랑하는 우리 매기야, 난 외투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의 월터 롤리 경이 되지를 못하는구나(역주: 엘리자베스 1세가 물구덩이를 건너도록 자기가 입고 있던 소매 없는 외투를 벗어 깔아준 롤리 경의 일화를 두고 한 말). 미스 카마이클께서 날 용서해 주시겠지.” 말고삐가 여자에게로 넘어갔다. “어쨌든 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가씨로 하여금 신발에 진흙을 묻히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안 그래?” (가시나무새 p149)

네 번째는 언어적 차이로 인해 문맥 이해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이다. 다음 예문은 영어에서 ‘I lost my way’라고 하여 ‘나의 길을 잃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을 이용하여 ‘이 부근의 모든 길은 내 길인데’라고 하여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주는 언어유희이다. 한국어에서는 그냥 ‘길을 잃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 언어유희를 살려주지 못하므로 번역가는 유머러스한 상황을 설명해줌으로써 언어적 차이에서 나오는 이해의 부족을 보충해 주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정보성 문제에 있어 이처럼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한 부분은 내용과 관련된 부분보다 비중이 작지만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에 전혀 의미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ST4) “Where do you come from?” said the Red Queen. “And where are you going?” Look up, speak nicely, and don't twiddle your fingers all the

time.”

Alice attended to all these directions, and explained, as well as she could, that she had lost her way.

“I don’t know what you mean by *your* way,” said the Queen: “all the ways about here belong to *me*—but why did you come out here at all?” (Through the Looking-Glass p142)

TT4) “너는 어디서 왔니?” 붉은 여왕이 물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면서 말해. 손가락 좀 그만 비틀어라.”  
 엘리스는 이 명령에 모두 따랐다. 그리고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길을 잃다’는 영어로 lose one’s way이다. 엘리스가 I lost my way 라고 한 말을 여왕은 끝이끝대로 받아들여 ‘내 길을 잃었다’로 해석했다: 옮긴이)  
 “네 길이라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여왕이 말했다. “이 부근에 있는 길은 모두 내거야. 그건 그렇고 여긴 도대체 왜 나왔지?” (거울 나라의 엘리스 p40)

위와 같이 원천 텍스트 독자와 목표 텍스트 독자들 사이의 공유정보의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이 목표어권 독자들의 텍스트 이해에 중요한 정보인지를 파악하여 우선 정보를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 정보를 추가한다면 어떤 정보를 선택 삽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번역가의 몫이다.

이제 본 논문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론과 절차

이제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표 1】의 5종 문학 텍스트들을 기초로 역주, 각주의 사용 실태를 분석했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화화 되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작품들이어서, 번역의 정확성이 높은 작품들이었다. 그러나 역주, 각주의 경우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추가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문체의 양상과 그 이유를 분석했다<sup>7)</sup>. 그 후 관련성이 떨어지는 역주가 들어간 10가지의 번

7) 다음 예문과 같이 새로 추가되는 설명이 주변 문맥이나 독자의 기존 지식과의 관련

역문을 선택해 각각의 텍스트에 대해 본 저자가 문맥이나 한국 독자의 배경지식 면에서 관련성을 높인 번역문을 새로 만들었다<sup>8)</sup>. 이를 토대로 10가지 텍스트에 대한 번역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응답자들에게 각각 문맥을 잘 살리고 이해가 쉬운 역주나 각주가 들어간 번역문을 선택하도록 했다. 추가 정보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역주나 각주 이외의 부분은 되도록 번역가의 번역문을 그대로 사용했다.

【표 1】 분석 텍스트

영문 텍스트	한글 텍스트	번역가	출판사 (출간년도)
<i>The Devil Wears Prada</i>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서남희	문학동네 (2006)
<i>Eat, Pray and Love</i>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노진선	숲을북 (2007)
<i>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i>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김선형	문학동네 (2009)
<i>Free Food for Millionaire</i>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이옥용	이미지박스 (2008)
<i>Alice's Adventure in Wonderland</i>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김양미	인디고 (2008)
		김경미	비룡소 (2005)
		김석희	웅진주니어 (2007)

성이 크게 없어 가장 일반적인 정의를 삽입하면 되는 경우는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TT)Two weeks ago, with shyness and pride, he'd shown her two poems he'd had published in *The Kenyon Review*. (p62)

ST)몇 달 전에 데이비드는 수줍으면서고 자랑스러운 태도로 「캐년 리뷰」(1939년에 창간된 미국의 명망 있는 문예지-유희이)에 실린 그의 시 두 편을 보여주었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음식 p124)

- 8) 단, 독자들의 배경지식에 맞으며 문맥에 적절한 역주를 삽입한 번역문 3번의 경우는 거꾸로 본 저자가 관련성이 낮은 번역 사례를 만들어 냈다. 관련성이 낮은 사례의 경우 이해가 안 되는 역지스런 역주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본 논문의 다른 번역가들의 번역 사례처럼 특별히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일반적인 정보를 삽입하는 번역 기술을 의미한다.

설문 조사의 대상은 2010년도 2학기 숙명여대 한영번역(시사문제 중심)을 수강하고 있는 27명의 학생들이었다. 설문과정은 학생들이 논문 말미 【부록】에 실린 10가지 항목의 번역문들을 읽고 효과적으로 문맥이해에 도움을 주는 역주나 각주가 있는 번역문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쓰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수업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독자 입장에서 글을 읽고 선택하도록 했다. 설문 조사의 목적은 그 결과가 본 논문의 논지와 일치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독자들이 문맥이나 자신이 가진 인지적 배경과 관련성이 높은 신정보를 접할 경우 관련성이 낮은 정보를 접한 경우보다 쉽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독자들의 문맥이해에 실제 도움이 되는 번역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 4. 분석

### 4.1. 관련성이 떨어지는 역주의 양상

본 논문 연구 텍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추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한 단어나 표현의 일반적 정보가 특정 텍스트의 문맥이나 주변 상황과 동떨어진 경우이다. 즉,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였으나 이것이 문맥과의 관련성이 적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번역가가 준 정보가 완전히 문맥을 벗어나 텍스트의 의미를 오히려 왜곡하는 경우이다

셋째, 독자의 인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어렵거나 복잡한 설명을 하는 경우이다. 특히 독자의 연령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설명은 오히려 문맥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넷째, 정보를 추가해서 뜻은 명확해 졌으나 새로운 정보 처리 노력의 증가로 원저자가 의도한 효과가 상쇄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문학에서는 단지 의미의 설명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적 효과나 유머의 효과를 살리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큰 설명 없

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즉 수사적 효과를 설명을 통해서만 전달하려고 하면 문학작품이 주는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다섯째, 추가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공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번역가의 역량 면에서 보면 관련 지식 부족이나 이해 부족일 수도 있고 독자에 대한 배려가 적어서 일수도 있다. 번역 기술면에서는 번역가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으나 지나치게 정보가 부족하다면 독자들의 이해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번역 양상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4.1.1.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추가한 경우 (문맥 관련성低)

문맥에 대한 독자들의 공유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정보를 삽입하였으나 그것이 정보 처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문맥을 잘 파악하지 않고 일반적인 백과사전식 정보를 삽입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보 추가로 독자들은 더 많은 것을 알게는 되었으나 특정 문맥 이해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실은 제공받지 못한다. 이 중 첫 번째 예문은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의 일부이다.

ST5) Before midnight, Casey found herself in front of Jay's apartment building on York Avenue. With her own set of keys, she let herself into Jay's cramped lobby-its walls painted a Schiaparelli pink. (Free Food for Millionaire p30)

TT5-1) 케이스가 요크가에 있는 제이의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좀 못 된 시각이었다. 케이스는 갖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좁은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의 벽은 스키아파렐리(1890-1973, 이탈리아의 의상 디자이너 올긴이) 핑의 진분홍색으로 칠이 되어 있었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p67)

텍스트에는 ‘Schiaparelli pink’라는 부분이 나온다. 이를 ‘스키아파렐리식 핑크’라고 번역하면 독자들에게 정확한 색채가 떠오르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형광색에 가까운 자극적인 분홍색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스키아파렐리’를

빼고 단순히 ‘진분홍색’, ‘진분홍색’, ‘꽃분홍’ 등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외국문학 작품에서 풍기는 이국적인 색채가 사라질 것이다. 번역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키아파렐리(1890-1973, 이탈리아의 의상 디자이너\_유희진) 풍의 진분홍색” 이라고 번역 했다. 역주를 통해 그가 디자이너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그녀를 대표하는 핑크는 ‘진분홍색’으로 번역한 것이다. 위와 같이 낯선 인물 뒤에 역주를 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번역방법이긴 하지만 문맥과 상관없이 백과사전적 해석을 추가하는 것은 문맥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문맥에서는 스키아파렐리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것이 그가 사용한 ‘핑크’와 연결되어 다양한 핑크 계열 색상 중 어떤 색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스키아파렐리가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와 함께 작업한 혁신적인 패션 디자이너로서 자극적인 ‘쇼킹 핑크’(Shocking Pink)를 개발하여 자신의 상징적 색상으로 삼고 환상적인 의상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분홍’보다 ‘쇼킹 핑크’(Shocking Pink)와 같은 설명을 추가했다면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욱 살려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스키아파렐리라는 ‘디자이너’에 대한 사전적 설명은 내용과의 관련성 면에서 그의 상징이 된 ‘색채’보다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주에 긴 인물 설명을 추가하는 방법보다는 “초현실주의 디자이너 스키아파렐리”라고 간단한 설명을 문장 내에 추가하는 방법이 흐름을 끊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TT5-2)는 추가 설명된 부분의 문맥 관련성을 높여 재구성한 번역문이다.

TT5-2) 케이스가 요크가에 있는 제이의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좀 못 된 시각이었다. 케이스는 갖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좁은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의 벽은 초현실주의 디자이너 스키아파렐리풍의 ‘쇼킹 핑크색’으로 칠이 되어 있었다.(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다음도 같은 텍스트인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의 예문으로 첫 번째 예문과 유사한 번역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문맥과 관련된 꼭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기보다 백과사전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읽은 후에도 소설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ST6) The duffel was filled like sausage casing with summer clothes and shoes. In the messenger bag strapped across her chest were her books: copies of Middlemarch and Wuthering Heights that she read and reread for comfort.(Free Food for Millionaire p30)

TT6-1) 군용 가방은 여름 구두와 옷을 쑤셔 넣어서 마치 소시지처럼 불룩했다. 한쪽 어깨에 둘러멘 서류 가방에는 『미들마치』(영국 작가 G. 엘리엇의 장편소설 웁긴이)와 『폭풍의 언덕』(영국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웁긴이)가 들어 있었다. 케이스는 위로 받고 싶을 때면 그 책들을 읽곤 했던 터라 벌써 여러 번 읽은 상태였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p66)

『미들마치』와 『폭풍의 언덕』은 주인공이 읽고 또 읽기를 반복한 책이며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오는 길에 가방에 이 두 권의 책을 넣어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보면 이 책들은 그녀의 인생관이나 가치관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번역문을 보면 “미들마치(영국 작가 G. 엘리엇의 장편소설 웁긴이)와 폭풍의 언덕(영국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웁긴이)”라고 추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책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일 뿐 사실 작가의 이름과 영국작가라는 사실만으로 독자들에 대한 이해도는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특히 『폭풍의 언덕』의 경우는 국내 독자들에게 친숙한 작품이지만 『미들마치』는 널리 알려진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역주를 보고 독자들이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 얻는 정보는 사실상 거의 없다. 『미들마치』는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여성에 대한 틀에 박힌 역할, 결혼 생활이 강요되는 가운데, 지적이고 목표의식이 강한 여주인공이 그 열정을 배출할 출구 없이 겪게 되는 괴로움과 그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장편소설로 케이스라는 주인공의 현재의 좌절이나 괴로움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역주를 달아야 한다면 좀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빅토리아 시대) 여성에 대한 억압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갈등을 그린 엘리엇의 소설”과 같이 ‘주제’를 알려주는 것이 독자들의 내용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재구성한 번역문은 다음 TT6-2)와 같다.

TT6-2) 군용 가방은 여름 구두와 옷을 쑤셔 넣어서 마치 소시지처럼 불룩했다. 한쪽 어깨에 둘러멘 서류 가방에는 『미들마치』(빅토리아 시대 여성에 대한 억압과 갈등을 그린 G. 엘리엇의 소설-웁긴이)와 『폭풍의 언덕』

(비극적 사랑과 잔인한 복수를 그린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웁긴이)이 들어 있었다. 케이스는 위로 받고 싶을 때면 그 책들을 읽곤 했던 터라 벌써 여러 번 읽은 상태였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다음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예문으로 역시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주지 않은 경우이다. 이 문맥에서 주인공은 발리를 여행하면서 발리를 찾는 사람들은 문화나 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포트 로더데일’을 찾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트 로더데일의 설명에는 그 곳이 발리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 관광지인지를 연결시켜 알려줘야 문맥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번역문 TT7-1)을 보면 “미국의 베니스요 대표적 휴양지”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 운하가 발달한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알 수는 있으나 발리역시 아름다운 휴양지이기 때문에 두 곳이 왜 다르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ST7) The tourists who were lured back to Bali were a fairly high-minded crowd (this was not Fort Lauderdale, after all), and their attention was guided toward the artistic and religious beauty inherent in the Balinese culture.(Eat, Pray, Love p238)

TT7-1) 다시 발리에 유혹된 관광객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었고 [어쨌거나 여긴 포트로더데일(미국의 베니스로 불리는 대표적인 바닷가 휴양지-웁긴이)이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발리 문화 고유의 예술적, 종교적 아름다움으로 쏠렸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p355)

포트 로더데일은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근처의 요트 산업이 발달한 호화 관광지이므로 발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국적, 문화적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포트 로더데일을 찾는 사람들은 화려한 오락적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문맥의 이해를 쉽게 해주려면 TT7-2)와 같이 “요트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찾는 플로리다 호화 휴양지”라고 하여 발리와 어떻게 다른 곳인지 재구성해 볼 수 있다.

TT7-2) 다시 발리에 유혹된 관광객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었고 (어쨌거나 여긴 포트 로더데일(요트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찾는 플로리다 호화 휴

양지-윙긴이)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발리 문화 고유의 예술적, 종교적 아름다움으로 쏠렸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마지막 예문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한 부분이다. 특정 영화와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의 옷차림새를 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장면으로 이 역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이 등장인물들의 옷차림새를 연상시켜 줄 수 있어야 비로소 추가 정보를 넣은 효과를 볼 수 있다. TT8-1)에 서는 TV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사람들의 의상과의 연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TT8-2)에 이를 재구성 했다. 좀 더 정보가 길어지더라도 「델러스」가 석유 재벌가의 이야기라든지 「서바이벌 게임」이 시골 지역 폭력배의 이야기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면 그런 사람들의 옷차림도 함께 생각이 나기 때문에 독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배경지식과도 쉽게 연상지어 문맥이해를 할 수 있다. 또한 영화 ‘Deliverance’의 한국어판 제목은 「서바이벌 게임」으로 이 도 수정하였다.

ST8) I hoped I wasn't staring during my monologue, but the spectacle was truly outrageous. I'd seen women dressed like hookers and men dressed like women and models not dressed at all at Miranda's parties, but never before had I seen people dressed like this. I knew it wasn't going to be a trendy New York crowd, but I was expecting them to look like something out of *Dallas*; instead, they looked like a dressier version of the cast from *Deliverance*. (Devil Wears Prada p325)

TT1) 혼자 말하면서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전에 미란다의 파티에서 매춘부처럼 입은 여자와 여자처럼 입은 남자들, 그리고 아예 옷을 입지 않은 모델들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입은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유행에 민감한 뉴요커들 같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델러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은 입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들은 <구출>\*\*의 등장인물들이 조금 차려입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각주)\*델러스를 배경으로 한 TV 드라마

\*\*남부의 차카누가 강에서 일어난 구출작전을 그린 영화. 원제는 ‘Deliverance’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p174)

TT2) 혼자 말하면서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전에 미란다의 파티에서 매춘부처럼 입은 여자와 여자처럼 입은 남자들, 그리고 아예 옷을 입지 않은 모델들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입은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유행에 민감한 뉴욕커들 같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델러스(Dallas)>에 나오는 사람들처럼은 입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들은 <서바이벌 게임(Deliverance)>\*\*의 등장인물들이 조금 차려입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각주)\*텍사스 석유 재벌가의 음모와 사랑을 그린 80년대 TV 드라마

\*\*남부 조지아 강으로 휴가를 간 직장인들이 지역 폭력배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을 그린 영화(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 4.1.2.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 (문맥 관련성無)

추가정보를 삽입하는 경우 중 번역가가 문맥 파악을 잘못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오해의 소지를 주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예문으로 작가가 사용한 은유적 표현에 대한 TT독자들의 이해 부족을 번역가가 역주를 통해 설명해 주려 한 부분이다. 자신의 전 남편을 ‘albatross’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알바트로스(‘신천옹’이라고도 불리는 대형 조류로서, 가장 활공을 잘하는 조류-웁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는 알바트로스가 어떤 새인지에 대한 과학적, 일반적인 지식을 전한 것으로 그 표현의 은유적 의미와는 크게 거리가 있었다. 이 문맥에서 알바트로스9)는 ‘평생 지고야 할 거추장스런 짐’이라는 의미이며 남편이 주인공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번역가가 한 설명을 보면 남편이 활공을 잘하는 새처럼 크고 멋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준다. 이처럼 알바트로스의 의미 중 문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를 주게 되면 독자들을 완전히 잘못된

9) 위키백과(www.wikipedia.org)에 의하면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의 시 ‘옛 선원의 시’(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에 등장한 예화에서 유래된 은유이다. 알바트로스가 따라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운의 표상으로 여겨졌으나 한 선원이 알바트로스를 활로 쏘아 죽이자 그로 인해 배가 저주받을 것을 두려워한 다른 선원들은 그를 벌주기 위해 죽은 알바트로스를 계속 목에 걸고 다니게 했다. 그러나 결국 그 배는 저주받아 선원은 모두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알바트로스는 행운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불운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후로 ‘속죄의 의미로 계속 짊어지고 가야하는 짐’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쓰이게 되었다.

맥락으로 이끌 수 있다.

ST9) I won't open any of that. Let it be sufficient to say that, on this night, he was still my lighthouse and my albatross in equal measure.(Eat, Pray, Love p12)

TT9-1) 그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내비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날 밤, 그는 여전히 내게 등대인 동시에 알바트로스('신천옹'이라고도 불리는 대형 조류로서, 가장 활공을 잘하는 조류-울긴이) 였다는 사실만 말해두겠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p26)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식으로 번역을 하면 원문 독자들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TT9-2)의 경우는 원문의 언어와 형식을 살려주고 설명을 추가한 경우이고 TT9-3)은 의미만 살려준 경우이다. 문학의 경우 이국적인 향취를 살려주는 것이 상황적 관련성을 높인다고 생각하면 TT9-2)와 같은 방법으로 번역할 것이고 목표언어권에서도 통하는 은유적 표현을 써서 의미도 살리고 막힘 없이 읽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TT9-3)과 같은 방법으로 번역할 수 있다.

TT9-2) 그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내비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날 밤, 그는 여전히 내게 등대인 동시에 알바트로스('속죄의 의미로 평생 지고가야 할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은유-울긴이)였다는 사실만 말해두겠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TT9-3) 그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내비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날 밤, 그는 여전히 내게 등대인 동시에 족쇄였다는 사실만 말해두겠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 4.1.3. 독자들의 지식과 인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인지적 거리감 大)

많은 번역가들이 독자들에게 과학적 지식만을 전해주면 독자들이 이를 보고 문맥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거리, 무게, 면적, 온도 등 추상적인 개념을 어떤 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인지적으로 접수가 안 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달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져도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예는 엘라라는 여인이 임신한 후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1 파인트(pint)씩 매일 먹어 체중이 많이 불었다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번역가는 독자들이 ‘파인트’라는 단위를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1갤런의 8분의 1로 미국에서는 0.47리터에 해당한다”라고 추가 설명해 주었으나 독자들에게는 ‘갤런’(gallon)이라는 단위 역시 낯설다. 또한 한국에서는 리터 법을 쓰고는 있지만 ‘0.47리터’라는 양은 인지적으로 익숙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아이스크림의 양이라는 것이 어떤 단위를 쓰더라도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역주를 넣어주는 수고와 이에 대한 정보처리의 노력을 생각한다면 TT10-2)처럼 재구성하여 ‘약 3인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아이스크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문맥 효과 면에서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ST10) Ella had gained eighty pounds by her thirty-sixth week—a lot of it was water resulting from her pre-eclampsia, but she had also been eating almost a pint of ice cream per day. Little else seemed to satisfy her except for the cold, smooth taste of coffee-flavored Haagen-Dazs.(Free Food for Millionaire p174)

TT10-1) 엘라는 임신 36주째 접어들었을 때 벌써 체중이 40킬로그램이 늘어났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임신중독증 때문에 생긴 물이 원인이었다. 하루에 아이스크림 1파인트(1갤런의 8분의 1로 미국에서는 0.47 리터에 해당한다. 옮긴이)를 거의 다 먹어치우고 있었던 것이다. 차갑고 부드러운 하겐다즈 커피 아이스크림 외에는 어느 것도 엘라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p321)

TT10-2) 엘라는 임신 36주째 접어들었을 때 벌써 체중이 40킬로그램이 늘어났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임신중독증 때문에 생긴 물이 원인이었다. 하루에 아이스크림 1파인트(약 3인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아이스크림. 옮긴이)를 거의 다 먹어치우고 있었던 것이다. 차갑고 부드러운 하겐다즈 커피 아이스크림 외에는 어느 것도 엘라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위의 예와 달리 번역가가 문맥의 이해도 높여주면서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보, 친숙한 지식과 쉽게 결합하여 이해를 높여주는 좋은 번역의 경우가 있다. 다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예문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크기가 미국 델라웨어 주와 비슷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델라웨어의 위치나 크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번역가는 ‘델라웨어’ 자체가 낯설다는 생각만 가지고 1)델라웨어의 ‘면적’에 대한 객관적, 수치적 설명을 추가하여 “미국 동부의 주로 면적은 6452 km<sup>2</sup>”이란 정보를 삽입하거나 2)델라웨어 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인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의 주”라는 설명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역주를 달아도 이 문장의 주제인 ‘발리의 크기’와 연결될만한 명확한 정보가 없다면 독자들의 이해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이를 잘 해결한 것이 TT11-1)의 번역이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기가 작은 주로서 우리나라 경상도만하다”는 역주는 한 눈에 보아도 발리의 크기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여주고 있다. 델라웨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관련성이 높은 정보 ‘경상도’를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TT11-1)은 번역가의 것이고 TT11-2)는 비교를 위해 본 저자가 재구성한 번역으로 6452km<sup>2</sup>보다 경상도만하다는 TT11-1)의 번역이 훨씬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11) But Bali is a fairly simple place to navigate. It's not like I've landed in the middle of the Sudan with no idea of what to do next. This is an island approximately the size of Delaware and it's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Eat, Pray, Love p216)

TT11-1) 하지만 발리는 탐험하기에 꽤나 간단한 곳이다.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른 채 수단 한가운데 떨어진 것과는 다르다. 이곳은 거의 델라웨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기가 작은 주로서 우리나라 경상도만하다-옴긴이) 만한 크기의 섬이고, 유명 관광지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p324)

TT11-2) 하지만 발리는 탐험하기에 꽤나 간단한 곳이다.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른 채 수단 한가운데 떨어진 것과는 다르다. 이곳은 거의 델라웨어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의 주(州)로 면적은6452km<sup>2</sup> -옴긴이)만 한 크기의 섬이고, 유명 관광지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 4.1.4.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정보를 준 경우 (정보처리 노력 大)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외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번역가들은 문화적 배경이 강하게 담긴 표현들도 그대로 전달해주거나 설명을 추가해서 살려주려고 한다. 문제는 그런 표현들이 연달아 나오는 경우 역주를 계속 붙여주면 독자들이 문학작품의 미적 향기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첫째 이유는 설명이 여러 번 이어지거나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하면 읽는 흐름이 끊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문학적 향기나 수사적 표현을 긴 역주를 통해 설명을 해주려 하는 경우 문학작품이 주는 수사적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경우의 예문이 TT12-1) 번역문으로 이란, 아이보리코스트, 아이슬란드, 이슬립, I-95, 이케아 등을 연달아 역주를 달아 번역을 하여 독자들이 문장에 집중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게다가 이슬립에 대한 설명으로 “이슬립은 중앙, 서부, 동부 이슬립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문맥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정보를 추가했기 때문에 정보처리에 드는 노력에 비해 효과는 더욱 반감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본 저자는 TT12-2)와 TT12-3) 등의 번역문을 제시하였다. TT12-2)에서는 불필요한 설명은 삭제하고 역주 안의 설명을 간단한 문장 내 설명으로 바꾸어 정보처리에 드는 노력을 크게 줄였다. 즉, “이슬립(이슬립은 중앙, 서부, 동부 이슬립으로 나뉘어져 있다-웁긴이), I-95(고속도로-웁긴이), 이케아(Ikea:유명 가구점-웁긴이)”이라고 복잡하게 번역된 것을 이슬립→이슬립(Islip) 시(市), I-95→I-95고속도로, 이케아→이케아(Ikea)가구점 정도로 간단히 설명을 했다. TT12-3)의 경우는 “I”로 시작하는 3개국, 3인조 등의 “I”를 “o”로 번역한 후 영어로 붙인 설명조차 빼버린 번역이다. 한국 독자들이 읽기에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빠른 파악이 될 수 있는 번역이다<sup>10)</sup>.

ST12) I wanted to go to the Three I's, did I? Then why not spend the year in Iran, Ivory Coast and Iceland? Or even better-why not go on pilgrimage to the Great Tri-State “I” Triumvirate of Islip, I-95, and Ikea? (Eat, Pray, Love p30)

10) TT12-3)의 경우는 설문지에는 포함되지 않은 번역문이다.

TT12-1) 그러니까 넌 ‘I’로 시작하는 3개국을 가고 싶다는 거지? 그럼, 이란(Iran), 아이보리 코스트(Ivory Coast: 코트디부아르의 옛 명칭-옴긴이), 아이슬란드(Iceland)에서 일 년을 보내는 건 어때? 아냐, 더 좋은 생각이 있다. 3개주에 걸친 위대한 ‘I’ 삼인조인 이슬립(이슬립은 중앙, 서부, 동부 이슬립으로 나뉘져 있다-옴긴이), I-95(고속도로-옴긴이), 이케아(Ikea: 유명 가구점-옴긴이)를 순례하는 건 어때?(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p52)

TT12-2) 그러니까 넌 ‘I’로 시작하는 3개국을 가고 싶다는 거지? 그럼, 이란(Iran), 아이보리 코스트(Ivory Coast), 아이슬란드(Iceland)에서 일 년을 보내는 건 어때? 아냐, 더 좋은 생각이 있다. 위대한 ‘I’ 삼인조인 이슬립(Islip)시(市), I-95고속도로, 이케아(Ikea)가구점을 순례하는 건 어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TT12-3) 그러니까 넌 ‘o’로 시작하는 3개국을 가고 싶다는 거지? 그럼, 이란, 아이보리 코스트, 아이슬란드에서 일 년을 보내는 건 어때? 아냐, 더 좋은 생각이 있다. 위대한 ‘o’ 삼인조인 이슬립 시(市), 인터스테이트-95 고속도로, 이케아 가구점을 순례하는 건 어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다음의 예문은 수사적 표현을 역주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흐름을 완전히 끊을 뿐 아니라 수사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예이다. 수사적 표현에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극대화 된 경우가 많은데 번역가가 의미적, 형태적으로 이를 보존해 주고 이를 역주를 통해 설명을 한다면 양쪽 텍스트 사이의 유사성은 높아지지만 ‘관련성’은 오히려 감소한다. 정보처리를 위해 드는 많은 노력에 비해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문맥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오히려 원문과 유사하지 않은 번역문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더 나은 경우가 많다(Gutt 2000: 118). 예를 들어 TT13-1)을 보면 언어유희와 풍자를 담고 있는 문장을 그대로 번역한 후 모두 설명을 통해 유사성을 만들어 주려 하다 보니 오히려 원문과 멀어진데다 정보처리 노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수사적 효과도 완전히 삭감되었다. 이에 비해 TT13-2)와 TT13-3)의 번역은 한국어로 된 새로운 언어유희와 풍자적 표현을 창조해 냄으로써 원문과 의미의 일치는 안 되었지만 효과적 등가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문맥효과가 극대화 되면서 관련성도 높아졌다.

ST13) “What was that?” inquired Alice.

“Reeling and Writhing, of course, to begin with,” the Mock Turtle replied; “and then the different branches of Arithmetic--Ambition, Distraction, Uglification, and Derision.” (p86)

TT13-1) “정규 과목이 뭔데요?” 앨리스가 물었다.

“처음에는 비틀기와 몸부림치기부터 배웠지. 그런 다음 산수의 여러 분야를 배웠어. 야망, 심란, 추화, 조롱.”(비틀기 reeling은 읽기 reading의 말장난, 몸부림치기 writhing은 쓰기 writing의 말장난, 야망 ambition은 덧셈 addition의 말장난, 심란 distraction은 뺄셈 subtraction의 말장난, 추화 uglification은 곱셈 multiplication의 말장난, 조롱 derision은 나눗셈 division의 말장난이다: 옮긴이) (김석희, p159)

TT13-2) “정규 과목은 뭐였는데요?”

“그야 먼저, 국어로 남말하기와 떼쓰기를 배우고 여러 가지 수프학도 배웠지 더 먹기, 뺏어 먹기, 고프기, 나눠 먹기.” (김경미, p151)

TT13-3) “기본 과목이 뭐였는데요?” 앨리스가 물었다.

“처음엔 당연히 막말하기와 악쓰기를 배우지.” 가짜 거북이 대답했다. “그 다음엔 수확의 일종인 더 일하기, 힘 빼기, 꼬꽂하기, 나눠먹기를 배웠지.” (김양미, p181)

#### 4.1.5.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음 (정보 삽입 無)

번역 텍스트만 읽다 보면 문맥상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원문과 비교해 보면 정보를 추가해 주어야 하는데 빠진 경우이다. 다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TT14-1)의 경우 버튼씨가 ‘커프’라는 뻔한 별명으로 불리었다고 하는데 ‘버튼’씨가 ‘커프’라고 불리는 것이 왜 ‘뻔한’ 것인지 번역문만 읽고 알기는 쉽지 않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다. 번역가가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자신은 문맥을 이해했지만 독자들이 스스로 함축된 의미를 찾도록 하자는 ‘결정’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원문 독자들은 쉽게 파악한 의미를 번역문의 독자들은 거의 파악하지 못한다면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TT14-2)나 TT14-3)과 같은 번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TT14-2)에서는 “‘커프’(소매 장신구인 ‘커프스 버튼(cuffs button)’에서 나온 별명)”이라고 하여 ‘버

튼'과 '커프'의 연관성을 밝혀주었고 TT14-3)은 고유명사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살려서 “‘단추’(Button)란 이름 때문에 자신도 ‘소매’(Cuff)(‘cuffs button’은 소매 장신구)란 별명으로 불리며”라고 하여 좀 더 독자들에게 더 다가가는 번역을 해보았다. 고유명사를 한국식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고유명사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추'나 '소매' 등으로 부르면 TT 독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T14) He hoped it would be a boy so that he could be sent to Yale College in Connecticut, at which institution Mr. Button himself had been known for four years by the somewhat obvious nickname of “Cuff.”(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p319)

TT14-1) 아기가 아들이어서, 버튼씨는 아이를 자신도 ‘커프’라는 다소 뻥한 별명으로 불리며 사년을 보냈던 코네티컷 주의 예일 대학교에 보낼 수 있기만 바랐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p8)

TT14-2) 버튼씨는 아기가 아들이기를 바랐다. 그러면 자신도 ‘커프’(소매 장신구인 ‘커프스 버튼(cuffs button)’에서 나온 별명)라는 다소 뻥한 별명으로 불리며 사 년을 보냈던 코네티컷 주의 예일 대학교에 보낼 작정이었다.(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TT14-3) 버튼씨는 아기가 아들이길 바랐다. 그러면 ‘단추’(Button)란 이름 때문에 자신도 ‘소매’(Cuff)(‘cuffs button’은 소매 장신구)란 별명으로 불리며 4년을 다녔던 예일대에 보낼 생각이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5. 결과

관련성이 높은 역주나 각주가 삽입된 번역문과 관련성이 낮은 번역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 조사 결과 관련성이 낮은 설명이 추가된 번역을 이해가 잘 된다고 선택한 경우는 최대 37%를 넘지 않았다. 관련성이 적은 번역문의 경우

0-2명에 이르는 학생들만 선택한 경우조차 있었다. 결국 객관적, 과학적인 정보를 추가하였어도 그것이 문맥과의 관련성이 적으면 독자들 입장에서는 의미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다음 【표2】에는 문제점이 있는 역주의 분석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이 분석되어 있다.

【표2】 역주의 문맥 관련성에 대한 설문 결과

역주나 각주가 붙은 표현	문제점	응답자의 이해도가 높은 항목	
		관련성이 적은 번역	관련성이 높은 번역
예문5) Schiaparelli pink	문맥 관련성 低	6(22%)	21(78%)
예문6) Middlemarch, Wuthering Heights	문맥 관련성 低	8(30%)	19(70%)
예문7) Fort Lauderdale	문맥 관련성 低	10(37%)	17(63%)
예문8) Dallas, Deliverance	문맥 관련성 低	2(7%)	25(93%)
예문9) albatross	문맥 관련성 無	0(0%)	TT2:16(59%) TT3:11(41%)
예문10) pint	인지적 거리감 大	2(7%)	25(93%)
예문11) Delaware	인지적 거리감 大	1(4%)	26(96%)
예문12) Ivory Coast, Islip, I-95, Ikea	정보 처리 노력 大	10(37%)	17(63%)
예문13) Reeling, Writhing, Ambition, Distraction…….	정보 처리 노력 大	4(15%)	23(85%)
예문14) Cuff	정보 삽입 無	1(4%)	TT2:15(55%) TT3:11(41%)

이해도 측면에서 한명의 학생들에게도 점수를 얻지 못한 번역은 역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문맥에 대한 오해를 하도록 한 예문 9)번의 경우였다. ‘albatross’의 은유적 의미를 전해 주지 않고 일반적인 정보인 ‘가장 활공을 잘하는 조류’라고 한 경우는 이해를 높여준다고 응답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필요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서 문맥 이해가 크게 어려웠던 예문 14)이다. 설명 없이 “‘버튼’씨의 별명은 ‘뽀하’기도 ‘커프’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 독자들은 왜 ‘버튼’과 ‘커프’가 관련이 있는지 잘 파악하기 어려웠고 단 한명의 학생만이 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

다고 선택했다. 번역가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독자들은 정보 차이를 해결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독자들의 인지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적절한 설명은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예문 11)의 “Delaware—>경상도 크기의 주(州)”의 경우, 전문가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독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상도 면적에 대한 상식과 쉽게 결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면적은 6452km<sup>2</sup>’와 같은 추상적인 정보보다 크게 선호되었다.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좋은 번역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예문 10)의 ‘파인트’에 대한 설명의 경우도 ‘1갤런의 8분의 1’ 같은 설명은 이 또한 한국에서 쓰이는 도량형이 아니므로 독자들의 기존 지식과 거리가 멀었고 설명 추가에 들인 노력에 비해 거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보다는 덜 과학적이라도 더 이미지가 떠오르기 쉬운 ‘3인이 먹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드시 사실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역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역주의 목적이 독자가 가진 지식과 결합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문맥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역주의 중요성도 크게 드러났다. 예문 5), 6), 7), 8)의 경우로 모두 일반적인 상식적인 역주, 즉 문맥 관련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역주보다 문맥에서 그 표현이 사용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역주가 선호되었다. 예를 들어 예문8)의 「델러스」나 「서바이벌 게임」의 경우 등장인물의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설명이 좀 길더라도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단순한 설명보다는 ‘옷차림새’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해야 문맥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즉, 특정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옷차림새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극히 일반적인 사실을 제공하면 문맥 효과를 올릴 수 없으며, 반드시 정보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라면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정보를 넣어야 한다. 결국 27명 중 25명의 학생들이 ‘옷차림’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역주를 이해하기 쉽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볼 때 역주를 꼭 넣어야 하는 경우라면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길이가 좀 길어지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많은 역주, 설명이 긴 역주는 독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문 12)의 경우 이슬립, I-95, 이케아, 아이보리코스트 등 한 문장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모두 역주를 통해 번역해 주니 읽는 흐름을 깨고 산만한 느낌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다. 역주의 수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이 넣기 보다는 문장 내에서 설명을 추가하는 편이 읽기에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예문 13)과 같이 언어적 차이 때문에 TT 독자들은 이해를 하기 어려운 언어유희나 수사적 표현의 경우 언어적 차이나 유머의 효과를 전달하지 못하고 긴 설명을 통해 설명식 번역을 해주니 웃음이나 수사적 표현을 이해하는 즐거움 등 원래 의도한 효과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독자들은 그런 번역을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설명보다는 새로운 언어유희를 창조해 주는 것이 훨씬 흥미롭고 원작가의 의도를 더 살려준다고 보았다. 응답자들이 성인인 숙명여대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주요 독자층인 아동들의 실제 역주에 대한 이해도는 더 떨어지고, 독서의 흐름은 더 끊어질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결국 역주나 각주는 지나치게 길거나 자주 사용되거나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작가가 의도한 효과를 살려 번역하는 방법이 훨씬 문맥 이해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위의 예문 중 많은 경우 문장 내의 설명이나 도착어권 표현, 새로운 표현의 창조 등을 통해 더 문맥 효과를 올려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6. 결론

정보성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을 파악한 후 제공되는 정보가 주변 문맥과 관련성이 있는 동시에 현재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결합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고도 효과적으로 문맥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번역가는 독자에게 ‘관련성’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번역가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번역가는 일단 유능한 ST의 독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메시지의

언어적 측면을 이해하는 언어적 기술 뿐 아니라 SL 문화의 언어외적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한다. 즉,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요소, 그리고 다른 텍스트들과의 상호 작용(intertextual) 등을 통해 텍스트 내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고 있는지에 예민할 필요가 있다(Leppihalme 1997: 20). 예문9)의 경우처럼 ‘albatross’의 은유적 의미와 완전히 다른 추가 설명을 하는 경우 텍스트의 이해를 돕기보다 큰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능한 독자로서 문맥의 정확한 함축의미를 파악한 다음, 번역가는 TT의 독자들도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즉, 일상적인 백과사전식 정보를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번역가의 의사소통 능력은 다른 문화에 대한 예민한 의식 뿐 아니라 ‘전략적 문제 해결 능력’도 포함하는 것(Wilss 1990, Leppihalme 1997: 20 재인용)이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유형이야말로 관련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번역가의 ST 문화에 대한 지식 부족이 문제지만 두 번째 경우는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데도 문맥에서 독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관련성 있는 정보를 찾아내려는 노력과 기술의 부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번역가는 독자의 요구사항과 기대수준을 잘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지식수준이나 공유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새로운 정보를 주었는데 그것이 원래 정보보다 더 어렵거나 TT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인지적 거리감은 여전히 멀다고 할 수 있다. 문맥과의 관련성이 높은 정보라도 이것이 독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잘 결합이 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넷째, ST 문맥을 잘 파악하고 TT 독자들의 인지적 배경지식을 파악한 다음에도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번역가는 그라이스(Grice)의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을 지켜야 한다. 양의 격률은 대화에서 현재 의사소통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제공하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다(Grice 1989: 26). 그러므로 하나의 표현이 ST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TT 독자들에게는 낯선 것이라고 생각되어 번역가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로 인해 오히려 독자들의 정보처리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읽는 흐름을 자주 끊어 독서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다섯 번째, 수사적 표현은 그 효과의 증가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언어, 의

미적 증가성을 유지해 주는 것보다 관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번역에서는 상충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수사적 표현의 전달에서 언어적, 의미적 유사성보다 효과의 증가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는 번역을 하는 경우 더 ST와 관련성이 큰 번역을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필요한 정보를 넣어 주지 않으면 독자들의 이해도가 현격히 떨어진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번역가가 판단에 의해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읽는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 정보를 넣어 주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결정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번역가 스스로의 배경지식이 부족해 정보를 추가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므로 번역가들은 항상 목표 언어(source language: SL)의 문화적 배경을 습득하기를 게을리 할 수 없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있는 표현의 경우 사전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던 다른 텍스트를 접했다거나 SL 독자들과의 문화적 공유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된다. 한 텍스트 내에 다른 텍스트를 암시하는 표현이 나올 경우에 번역가들조차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문화적으로 거리가 먼 언어의 경우 역사,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숙달된 번역가라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SL의 문화,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인용문, 관용어구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Leppihalme 1994).

정보를 추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에 적절하고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주어 독자가 텍스트를 쉽게 받아들일도록 해주는 것이다. 설문에서도 파악되었듯이 한국 독자들의 인지적 배경과 가까운 설명은 과학적인 수치는 아니라도 독자들이 이해도를 상승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이었다. 본 저자는 분석과 조사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보다는 간단하면서도 알기 쉽고 정곡을 찌르는 설명을 통해 최대한 독서의 흐름을 끊지 않는 자연스런 문맥을 제공하기 위해 번역가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제시하고자 했다.

## 참고문헌

- 김세정 (2003) 「텍스트의 정보성-문학작품 속 어휘번역」, 『번역학 연구』 4(1): 49-69.
- 김순미 (2003) 「영한번역에서의 은유에 관한 연구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박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오미형 (2010) 「자막번역과 텍스트 외적 요소: 공유지식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1(3): 143-166.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eaugrande, Robert de and Wolfgang Dressler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Gibbs, Raymond W. (1999) *Intentions in the Experience of Meaning*,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ice, Paul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Gutt, Ernst-August (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Kirk, Sung Hee (2001) *Translation and Textuality*, Seoul: Hankook Publishing Co.
- Leppihalme, Ritva (1997) *Culture Bump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Newbert, Albrecht and Gregory M. Shreve (1992) *Translation as Text*, Kent, Ohio: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Nida, Eugene and Charles R.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J. Brill.
- Nord, Christiane (2001)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Shuttleworth, Mark and Moira Cowie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1st 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 (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 Malden: Blackwell Publishers Inc.

Steen, Gerard (1994) *Understanding Metaphor in Literatur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정보추가 분석에 사용된 원천어 및 목표어 문헌>

Carroll, Lewis (1982)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and Through the Looking-Gla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루이스 캐럴 (2005)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김경미 역.), 서울: 비룡소.

루이스 캐럴 (2007)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김석희 역.), 서울: 웅진 주니어.

루이스 캐럴 (2008)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김양미 역.), 서울: 인디고.

Fitzgerald, F. Scott (2008)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and Other Jazz Age Stories*, New York: Penguin Books Ltd.

스콧 피츠제럴드 (2009)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김선형 역.), 파주: 문학동네.

Gilbert, Elizabeth (2006) *Eat Pray Love*, London: Penguin Books Ltd.

엘리자베스 길버트 (2007)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노진선 역.), 서울: 숲을 북.

Lee, Min Jin (2007) *Free Food for Millionaire*, New York: Grand Central Publishing.

이민진 (2008)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이옥용 역.), 서울: 이미지 박스.

Weisberger, Lauren (2003) *The Devil Wears Prada*, New York: Anchor Books.

로렌 와이스버거 (2006)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서남희 역.), 파주: 문학동네.

[Abstract]

**Translation Methods to Bridge the  
Cultural Gap between Two Languages  
— Based on Relevance Theory —**

Kim, Soon-Mi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relevance theory provides an important framework for translators when they add information in the translated material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target readers. When the source language (SL) readers share more common knowledge with the source text (ST) author than the target text (TT) readers do, translators adjust the informativity gap with the following methods: (a) explanation within the text; (b) explanation in parenthesis within the text; (c) explanation by a translator's note within the text; (d) explanation by footnote; (e) explanation in a glossary(Kirk 2001: 137). This paper analyzed the cases of explanation by a translator's note and explanation by footnote to see if added information provided by a translator has the largest contextual effects and costs the least processing efforts(Gutt 2000: 31).

Expressions with strong cultural background and different language us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five literary texts; typical problems in added information in terms of the level of relevance were found. The author made an adjustment to the translator's note or footnote of 10 problematic translation cases. Then to see whether the texts with higher level of contextual relevance and less processing efforts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TT readers, 27 students from the author's translation class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were surveyed. The students were asked to read comparative translated texts as

TT readers and to choose texts which increases their understanding of context more eff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readers found added information with high level of relevance was far more understandable and closely related to their cognitive background knowledge.

▶ Key Words: informativity, footnote, mutual knowledge, relevance, translation methods

**【부록】역주 각주 번역 관련 설문지**

영한번역에서 영어권 독자와 한국 독자들의 언어, 문화적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 번역가는 역주, 각주, 괄호 내 설명, 문맥 내 설명 등 방법을 통해 설명을 추가 합니다. 다음에 있는 예문들은 번역가가 역주, 각주, 설명을 추가한 번역들입니다. 독자로서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쉽게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 효과를 내준 번역은 어떤 것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써 주십시오.

\*다음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예문으로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1 년간의 자아를 찾는 여행을 떠나게 된 주인공이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지내며 느낀 여행기이다. (예문 1,2,3,4에 해당)

1. ST) The tourists who were lured back to Bali were a fairly high-minded crowd (this was not Fort Lauderdale, after all), and their attention was guided toward the artistic and religious beauty inherent in the Balinese culture.(Eat, Pray, Love p238)

TT1) 다시 발리에 유혹된 관광객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었고 (어쨌거나 여긴 포트로더데일(미국의 베니스로 불리는 대표적인 바닷가 휴양지-울긴이)이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발리 문화 고유의 예술적, 종교적 아름다움으로 쏠렸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TT2) 다시 발리에 유혹된 관광객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었고 (어쨌거나 여긴 포트 로더데일(요트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찾는 플로리다 호화 휴양지-울긴이)이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발리 문화 고유의 예술적, 종교적 아름다움으로 쏠렸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 이유는?→

2 ST) I won't open any of that. Let it be sufficient to say that, on this night, he was still my lighthouse and my albatross in equal measure.(Eat, Pray, Love p12)

TT1) 그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내비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날 밤, 그는 여전히 내게 등대인 동시에 알바트로스(‘신천옹’이라고도 불리는 대형 조류로서, 가장 활공을 잘하는 조류-울긴이)였다는 사실만 말해주겠다.(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TT2) 그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내비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날 밤, 그는 여전히 내게 등대인 동시에 알바트로스(‘속죄의 의미로 평생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은유-울긴이)였다는 사실만 말해주겠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TT3) 그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내비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날 밤, 그는 여전히 내게 등대인 동시에 족쇄였다는 사실만 말해주겠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 이유는?→

3. ST) But Bali is a fairly simple place to navigate. It's not like I've landed in the middle of the Sudan with no idea of what to do next. This is an island approximately the size of Delaware and it's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Eat, Pray, Love p216)

TT1.)하지만 발리는 탐험하기에 꽤나 간단한 곳이다.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른 채 수단 한가운데 떨어진 것과는 다르다. 이곳은 거의 델라웨어(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기가 작은 주로서 우리나라 경상도만하다-옳긴이)만한 크기의 섬이고, 유명 관광지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TT2.)하지만 발리는 탐험하기에 꽤나 간단한 곳이다.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른 채 수단 한가운데 떨어진 것과는 다르다. 이곳은 거의 델라웨어(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의 주(州)로 면적은6452km<sup>2</sup> -옳긴이)만 한 크기의 섬이고, 유명 관광지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 이유는?→

다음 예문에서 작가는 Italy, India, Indonesia 3국으로 자아찾기 여행을 가려한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4. ST) I wanted to go to the Three I's, did I? Then why not spend the year in Iran, Ivory Coast and Iceland? Or even better-why not go on pilgrimage to the Great Tri-State "I" Triumvirate of Islip, I-95, and Ikea? (Eat, Pray, Love p30)

TT1) 그러니까 넌 'I'로 시작하는 3개국을 가고 싶다는 거지? 그럼, 이란(Iran), 아이보리 코스트(Ivory Coast: 코트디부아르의 옛 명칭-옳긴이), 아이슬란드(Iceland)에서 일 년을 보내는 건 어때? 아냐, 더 좋은 생각이 있다. 3개주에 걸친 위대한 'I' 삼인조인 이슬립(이슬립은 중앙, 서부, 동부 이슬립으로 나뉘져 있다-옳긴이), I-95(고속도로-옳긴이), 이케아(Ikea:유명 가구점-옳긴이)를 순례하는 건 어때?(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TT2) 그러니까 넌 'I'로 시작하는 3개국을 가고 싶다는 거지? 그럼, 이란(Iran), 아이보리 코스트(Ivory Coast), 아이슬란드(Iceland)에서 일 년을 보내는 건 어때? 아냐, 더 좋은 생각이 있다. 위대한 'I' 삼인조인 이슬립(Islip)시(市), I-95고속도로, 이케아(Ikea)가구점을 순례하는 건 어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 이유는?→

\*다음의 예문 5번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로 남북전쟁시대 남부의 상류층이었던 벤자민 버튼의 아버지는 아기 '벤자민'이 태어났을 때 다음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5. ST) He hoped it would be a boy so that he could be sent to Yale College in

Connecticut, at which institution Mr. Button himself had been known for four years by the somewhat obvious nickname of Cuff."(*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p319)

TT1) 아기가 아들이어서, 버튼씨는 아이를 자신도 ‘키프’라는 다소 뻥한 별명으로 불리며 사년을 보냈던 코네티컷 주의 예일 대학교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랐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TT2) 버튼씨는 아기가 아들이기를 바랐다. 그러면 자신도 ‘키프’(소매 장신구인 ‘키프스 버튼(cuffs button)’에서 나온 별명)라는 다소 뻥한 별명으로 불리며 사 년을 보냈던 코네티컷 주의 예일 대학교에 보낼 작정이었다.(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TT3) 버튼씨는 아기가 아들이길 바랐다. 그러면 ‘단추’(Button)란 이름 때문에 자신도 ‘소매’(Cuff)( ‘cuffs button’은 소매 장신구)란 별명으로 불리며 4년을 다녔던 예일대에 보낼 생각이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 이유는?->

\*한국인 이민 2세인 주인공 케이스는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똑똑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다. 보수적인 아버지와 항상 갈등을 빚다가 싸움 끝에 기출하면서 소중한 물건들을 챙기고 있다. 엘라는 케이스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예문 6.7.8에 해당)

6. ST) The duffel was filled like sausage casing with summer clothes and shoes. In the messenger bag strapped across her chest were her books: copies of Middlemarch and Wuthering Heights that she read and reread for comfort;…(Free Food for Millionaire p30)

TT1) 군용 가방은 여름 구두와 옷을 쑤셔 넣어서 마치 소시지처럼 불룩했다. 한쪽 어깨에 둘러멘 서류 가방에는 미들마치(빅토리아 시대 여성에 대한 억압과 갈등을 그린 G. 엘리엇의 소설-웁킨이)와 폭풍의 언덕(비극적 사랑과 잔인한 복수를 그린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웁킨이)이 들어 있었다. 케이스는 위로 받고 싶을 때면 그 책들을 읽곤 했던 터라 벌써 여러 번 읽은 상태였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TT2) 군용 가방은 여름 구두와 옷을 쑤셔 넣어서 마치 소시지처럼 불룩했다. 한쪽 어깨에 둘러멘 서류 가방에는 미들마치(영국 작가 G. 엘리엇의 장편소설 웁킨이)와 폭풍의 언덕(영국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웁킨이)이 들어 있었다. 케이스는 위로 받고 싶을 때면 그 책들을 읽곤 했던 터라 벌써 여러 번 읽은 상태였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그 이유는?→

7.ST)Ella had gained eighty pounds by her thirty-sixth week—a lot of it was water

resulting from her preeclampsia, but she had also been eating almost a pint of ice cream per day. Little else seemed to satisfy her except for the cold, smooth taste of coffee-flavored Haagen-Dazs.(Free Food for Millionaire p174)

TT1) 엘라는 임신 36주째 접어들었을 때 벌써 체중이 40킬로그램이 늘어났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임신중독증 때문에 생긴 물이 원인이었다. 하루에 아이스크림 1파인트(약 3인치의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아이스크림. 옮긴이)를 거의 다 먹어치우고 있었던 것이다. 차갑고 부드러운 하겐다즈 커피 아이스크림 외에는 어느 것도 엘라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TT2) 엘라는 임신 36주째 접어들었을 때 벌써 체중이 40킬로그램이 늘어났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임신중독증 때문에 생긴 물이 원인이었다. 하루에 아이스크림 1파인트(1갤런의 8분의 1로 미국에서는 0.47 리터에 해당한다. 옮긴이)를 거의 다 먹어치우고 있었던 것이다. 차갑고 부드러운 하겐다즈 커피 아이스크림 외에는 어느 것도 엘라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그 이유는?→

8. ST) Before midnight, Casey found herself in front of Jay's apartment building on York Avenue. With her own set of keys, she let herself into Jay's cramped lobby-its walls painted a Schiaparelli pink.(Free Food for Millionaire p30)

TT1.) 케이스가 요크가에 있는 제이의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좀 못 된 시각이었다. 케이스는 갖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좁은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의 벽은 초현실주의 디자이너 스키피아렐리풍의 쇼킹 핑크색으로 칠이 되어 있었다.

TT2.) 케이스가 요크가에 있는 제이의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좀 못 된 시각이었다. 케이스는 갖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좁은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의 벽은 스키피아렐리(1890-1973, 이탈리아의 의상 디자이너 옮긴이) 풍의 진분홍색으로 칠이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다음 예문 9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장면이다. 패션 잡지 편집장인 미란다의 파티에 초대된 남부의 부유하지만 촌스런 사람들에 대한 묘사 장면이다.

9. ST) I hoped I wasn't staring during my monologue, but the spectacle was truly outrageous. I'd seen women dressed like hookers and men dressed like women and models not dressed at all at Miranda's parties, but never before had I seen people dressed like this. I knew it wasn't going to be a trendy New York crowd, but I was expecting them to look like something out of *Dallas*; instead, they looked like a

dressier version of the cast from *Deliverance*. (Devil Wears Prada p325)

TT1) 혼자 말하면서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전에 미란다의 파티에서 매춘부처럼 입은 여자와 여자처럼 입은 남자들, 그리고 아예 옷을 입지 않은 모델들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입은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유행에 민감한 뉴요커들 같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델리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입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들은 <구출>\*\*의 등장인물들이 조금 차려입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각주)\*델리스를 배경으로 한 TV 드라마

\*\*남부의 차키누가 강에서 일어난 구출작전을 그린 영화. 원제는 'Deliverance'.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TT2) 혼자 말하면서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전에 미란다의 파티에서 매춘부처럼 입은 여자와 여자처럼 입은 남자들, 그리고 아예 옷을 입지 않은 모델들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입은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유행에 민감한 뉴요커들 같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델리스(Dallas)>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입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들은 <서바이벌 게임(Deliverance)>\*\*의 등장인물들이 조금 차려입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각주)\* 텍사스 석유 재벌가의 음모와 사랑을 그린 80년대 TV 드라마

\*\* 남부 조지아 강으로 휴가를 간 직장인들이 지역폭력배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을 그린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이유는?→

\*다음 예문 10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일부로 바다속 생물들의 수업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10. ST) “What was that?” inquired Alice.

“Reeling and Writhing, of course, to begin with,” the Mock Turtle replied; “and then the different branches of Arithmetic--Ambition, Distraction, Uglification, and Derision.” (p86)

TT1.) “정규 과목은 뭐였는데요?”

“그야 먼저, 국어로 남말하기와 떼쓰기를 배우고 여러 가지 수프학도 배웠지 더 먹기, 뺏어 먹기, 고프기, 나눠 먹기.” (김경미, p151)

TT2.) “기본 과목이 뭐였는데요?” 앨리스가 물었다.

“처음엔 당연히 막말하기와 악쓰기를 배우지.” 가짜 거북이 대답했다.

“그 다음엔 수확의 일종인 더 일하기, 힘 빼기, 꼴꼴하기, 나눠먹기를 배웠지.” (김양미, p181)

TT3.)“정규 과목이 뭔데요?” 엘리스가 물었다.

“처음에는 비틀기와 몸부림치기부터 배웠지. 그런 다음 산수의 여러 분야를 배웠어. 야망, 심란, 추화, 조롱.”(비틀기 reeling는 읽기 reading의 말장난, 몸부림치기 writhing은 쓰기 writing의 말장난, 야망 ambition은 덧셈 addition의 말장난, 심란 distraction은 뺄셈 subtraction의 말장난, 추화 uglification은 곱셈 multiplication의 말장난, 조롱 derision은 나눗셈 division의 말장난이다: 율건이) (김석희 p159)

그 이유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미

숙명여대 영문과 초빙교수

smikim@sookmyung.ac.kr

관심분야: 번역 교수법, 번역 이론, 문학 번역, 문화 이론

논문투고일: 2011년 0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1년 0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1년 03월 14일